

## 第4分科 : 韓·美 방위산업 관계 懸案問題

**화** 요일 오후 분과회의는 사회자인 Richard L. Walker 前 駐韓 미국대사가 토의주제의 중요성과 복잡성, 방위생산 및 武器移讓의 경쟁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개최되었다.

발표는 한국방위산업의 과거의 발전과 현재의 어려움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한국 국방대학원의 金鐵煥박사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56%의 가동율이 의존하고 있고 미국이 한국의 제3국 판매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또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장비 및 창정비용역에 대해서도 매우 적은 양을 구매하고 있지만, 한국은 매년 19억불에 달하는 미군장비를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金박사는 한국은 미국의 타동맹국에 비해 미군장비의 구매와 off-set계약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군사기술에 있어서도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 미국 국방조달에서 한국 역할의 증대, 제3국에 대한 무기 판매에 있어 미국의 제약 완화 및 한·미간 협력, 한국에 대한 기술이전시 보다 양호한 협약, 미국의 고도기술과 기초적이고 노동집약적인 무기생산분야에서 한국의 잇점을 고려한 분업등 한·미방산업체간의 보다 증대된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한국산업개발연구원장 白永勳박사는 한국정부의 조달이 격감됨에 따라 1982년 이래

한국방산업체의 조업율이 40% 정도수준이라는 것을 引用하면서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에 대하여 유사한 검토를 하였다.

白博士는 지적소유권 문제, 미측에서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장비의 판매에 대한 로얄티부과로 인한 한국측의 분노와 미국조달법에 의하여 한국업체에 부과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체간 협력, 한·미간 협력적인 방위동원계획, 미국이 다른 우방국과 동등한 대우를 한국에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Northrop International 韓國支社의 Robert Liotta씨는 오프셋트 계약의 중요성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는 한국의 오프셋트 계획이 대응구매보다는 직접오프셋트에 중점을 두며, 공동생산을 오프셋트 실적으로 간주하는 계약을 지닌 매우 명확하고 정교한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오프셋트 계약의 비용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10% 까지 증가하게 되었지만, 한국측은 이와 같은 비용을 한국방위 산업발전을 위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업체는 전반적으로 오프셋트를 좋아하지 않고 그들 정부는 고용기회 및 향후 수출의 손실, 방위산업분야의 약화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경쟁으로 인하여 주요 오프셋트 이익을 제공할수 밖에 없었다.

한국의 오프셋트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65종 이상의 구매가 기술이전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왔으나,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력전차의 경우와 같이 구매가 한국경제발전에 별로 기여를 하지 못하는 분야로

이 내용은 1987. 11. 29.~12. 3. 기간중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되었던 韓·美 안보 연구협의회 제3차 연례회의 결과보고서 중에서 한·미 방위산업관계 현안문제와 최종회의의 결론 및 요약사항을 발췌하여 번역·수록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자원이 흡수될수 있고 미국의 심각한 수출제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James Vaught 예비역 中將은 방위산업관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견해를 개략적으로 언급하면서 미국정부는 해외거래에 있어 미업체에게 한정적인 통제를 하고 있지만 한국의 업체는 정부의 지시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방산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건전한 한국의 방산업체는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필요하지만 한국업체 및 정부와 거래하는데 있어서 美 업체에 수반되는 복잡한 문제는 兩國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BMV社의 Zane Finkelstein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에 대하여 연설문없이 口頭로 요약·발표하였다.

동맹국이 미국의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반면 미국은 동맹국을 대신하여 과중한 방위부담을 감수한다는 포괄적인 이해관계가 현재는 와해되고 있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미국은 차기 5년내에 무역적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아세안국과의 무역적자를 시정하고, 1982년 이래 40%나 감소된 무기수출에 대응하려는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한국 민수품의 미국 구매를 상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미군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토론자의 발표를 통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의 黃東準박사는 한국은 오프셋제도를 추구할 수 밖에 없으며, 방위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며 자원의 낭비를 피하기 위하여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의 柳俊龔 상근부회장은

양국 정부는 무역과 기술이전에 있어서 불명확한 제한은 피하여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駐韓 美 軍사지원단장인 Todd Graham 少將은 80여개의 한국 방위산업체가 年間 20억불에 달하는 軍장비를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美 정부가 한국방산업체를 지원한 증거로서 지난 해 한국방산업체를 위하여 창정비 작업량을 두배로 증가시켰으며,\* 올해만도 1천6백만불에 달하는 로얄티(25만불이라는 주장에 반하여)를 면제하여 주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또한 그는 한국과의 무역적자에 대한 美·議會議의 불안을 언급하면서 오프셋제도는 양국에 상호이익이 될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에서 보다 쉽게 달성하고 관리할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駐韓 美 상공회의소의 James Booth씨는 Finkelstein씨의 주장을 支持하면서 對美수출이 1983년 한국 총수출의 23%를 차지하였고, 87년도에는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이 미국 방위노력의 기반이 되고 있는 건전한 미국경제를 육성하는데 협력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자체노력이나 일본과 같은 국가의 노력에 보다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General Electric 한국지사의 Gordon Cucullu씨와 Teledyne Industries의 James Riddle씨는 전반적으로 이와같은 관점에 同意하면서 미국은 경제관계와 안보문제에 대한 경제관계의 영향을 보는 관점이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Walker 前 大使는 회의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다양한 행위가 대부분 통제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반적인 토의를 시작하였다.

美 대통령이 의회의 무역정책에 대하여 통제를 할수 없게 될수 있다고 암시하였다. 아시

아의 교역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중요한 요소이며, 그와같은 인식을 형성하는데 있어 상징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사업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협력하려는 의욕을 나타내는 좋은 상징이 될 것이다.

계속된 토의에서 미군장비에 대한 정부의 지정구매는 장비의 질보다는 이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한국에 대한 미국장비의 판매가 전체적인 무역계통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또한 미군장비에 대한 한국의 구매는 駐韓美軍이 지난해 지출한 12억불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흑자는 매우 근간의 발전사항이며, 한국의 경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견실하지도 못하고 발전되지도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韓·美 경제관계를 관리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微弱, 한국의 관료주의적 비능률, 업체간 대화의 부족, 업체의 자발적인 행위와 한국정부가 안보목적을 위하여 원하는 것과의 차이, 비효율적인 反덤핑 활동을 조장하고 미국의 무역문제에 대하여 과도한 수단을 통하여 해결을 하려고 하는 미국의회의 새로운 무역법안 등을 회의참석자들은 당면문제로 요약하였다.

2일차 회의는 이종률 정무장관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연회로 끝을 내게 되었다. 정무장관은 이 위원회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제3차 연례회의는 위원회가 하나의 조직체로 발전하여 나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 최종회의 : 要約 및 論評

**정**규회의를 마감하면서 간략한 요약과 약간의 결론적인 평가로 이번 회의는 종결되었다. 워싱턴州立大 Patrick Morgan교수는 각 분과 사회자들과 논문제출자들을 치하하고, 종전보다 장기간에 걸친 이번 회의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였다.

분과회의는 너무 크고, 토론참가자들이 그들의 의견을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었으며, 사교행사는 상호활동을 위해 훌륭하였고 일련의 우수한 연설이 제공되었다.

제1분과에서는 口傳역사문제에 관해 중요한 고려사항들을 분명하게 조명하였고, 제 2분과에서는 지역내 경제 및 정치적인 변화는 잘 다루었으나 전체적인 체제의 변화와 변화의 안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3분과에서는 북한내 변화의 有無에 대해 흥미있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회의에서 더 많은 다루는 것이 요구된다.

제4분과에서는 방위산업 문제의 활발한 검토와 아울러, 미국에게 유익한 것은 우방에도 좋다고 보고 이에 따라 우방들을 행동하도록 하는 미국의 경향과 한국의 복지에 영향을 주는 미국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전반적인 미국의 복지는 국외자가 영향을 미칠수 없는 것으로 보는 한국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 강조된 사항은 우방의 전략 목표 불일치와 (1) 개인과 업체의 경제행위, (2) 국내정치적 압력 등이었다.

제5분과에서는 부담의 배분·지휘체통의 조정, 미군의 이동이나 감축가능성 등에 관해 다수의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제기되었다. 이런

주제들은 전쟁억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또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우방국가의 작전요소를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관한 우려와 함께 제기되었다.

그는 회의의 본래 의도에 맞추어 참석자들이 주제와 상호간을 점차 잘 알게 되었고, 문제들을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다룰 능력을 기르며 창조적인 고찰과 의견차이의 영역까지 이르렀다고 결론지었다.

박동환 교수는 장차 참석자들이 그들의 주제를 더 깊게 다루어야 하고 애매한 일반론보다는 더욱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교수는 논문발표전의 구체적인 교육이 회의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제안했고, Jai, H. Kim 박사는 事前에 논문의 개요를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Gregory Henderson은 차후 회의에서는 한국측의 젊은 전문가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Stilwell장군은 평가와 함께 회의의 공식적인 종결을 지었으며, 장래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차후 회의의 한가지 목표는 동시통역을 사용하는 것이다. 토론의 기초로 사용할 주요 논문을 제공한다든지 하여 더 예리한 핵심제공이 필요하다. 회의에서는 2개국어로 된 韓·美관계 「실정보고서」의 발간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이 회의가 이 조직의 양국적인 특징을 고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회의기능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 조직체의 당면 문제점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며 핵심은 양호한 것이다. 그는 이번 회의의 효과적인 조직을 위한 한국측 참가자와 그들의 歡待에 다시한번 감사를 표하였다.

이어 있는 駐韓美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에 韓·미 연합 사령관인 Louis C. Menctrey 장군이

초청연사로 참석하였다. Menctrey장군은 주한미군과 관련한 현재 상황을 분석하였다.

駐韓美軍은 지속적으로 더 우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재래 군사기술과 현대적인 기술훈련을 겸비한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더 적은 인원으로 전투수행력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군사적인 상황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처럼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미국의 지역적인 역할이 고려되고 한국의 세력이 증대됨으로서 韓·미관계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는 현재 연합사의 장래에 대해 검토중이며 이를 6월까지 워싱턴에 보고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장래는 미국의 이해, 韓·美관계, 한국의 발전등에 달려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우위와 다가오는 올림픽을 비추어 볼때 조만간 연합사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며, 비록 조정은 있을수 있지만 미군이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Menctrey장군은 청중들의 질문에 답하여 한국에 소요가 발생하면 투입될수 있는 부대는 국내목적으로 연합사에서 철수한 한국부대가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미군은 한국 국민과의 어떠한 대립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후보중 누구에게라도 안보상황에 대해 설명할 용의가 있지만 그런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말하였다.

미군이 최고 지휘권을 한국에 넘겨줄 것인가 하는 질문에 그는 그가 한국군을 지휘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美軍을 지휘하고 한국군에 대해서는 작전통제만을 행하는 것이다. 그는 侵攻에 대비한 충분한 警報를 획득하는 문제가 심각하며, 북한군의 65%가 공격 위치에서 동원없이도 사용될수 있으며 가능한 경보기간은 점점 짧아져 아마 12~24시간 이내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 韓·美 安保研究協議會 제3차회의 결과보고

그는 미군의 임무에 따른 장비에는 만족을 표시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최고로 우수하며 나머지도 최상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양호한 것이다. 또 핵무기의 존재유무를 밝히지 않는 미국의 정책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군사분계선 부근에 핵무기를 두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생각이며 한국에서 핵무기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어떠한 상황도 예견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남북한 군대의 적절한 비율은 어떤 정도인가 하는 질문에 그는 군사력을 단순히 量的으로 측정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공격을 저지하거

나 한국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거의 동일한 비율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이날 저녁 최창운 문화공보부 차관이 Korea House에서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그는 협의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만족함과 함께 협의회의 목적과 지도력에 대해 치하하였다.\*

\* 실제 美側이 부과한 로얄티 금액은 30만불 정도임

### 韓·美 안보연구 협의회(The Council on U.S-Korean Security Studies)

韓·美 안보연구협의회의는 한·미 양국간에 이루어진 순수한 非營利機關으로 향후 한·미간의 협력에서 야기될 수 있는 주요 문제에 대한 학문적인 분석과 폭넓은 의견교환을 위하여 1984년에 설립되었다.

이 협의회는 양국의 학자, 현·예비역 외교 및 軍관계인사, 정부관리 및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한·미 양측의 모든 회원들은 솔직하고 폭넓은 의견교환이 상호이해를 증진시킬수 있으며 앞으로의 건전한 계획과 意思決定을 할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따라서 同 협의회는 주요 정책문제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한·미관계에 대한 활발하고 制約없는 의견 교환을 통하여 양국의 동맹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어떠한 국내정치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또한 정치적인 고려사항에 의하여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

#### 理事會

- Richard G. Stilwell 육군대장(예)  
前 한·미 연합사령관
- 한·미 안보연구 협의회 회장
- 백선엽 육군대장(예)  
한·미 안보연구 협의회 부회장
- 이민영 육군소장(예)
- John p. Lovell 인디애나 대학 교수
- 서대숙 하와이 대학 교수
- Richard L. walker  
前 주한 美 대사

#### 자문 위원회

- Robert C. Beckenridge 대령(예)
- Zane Finkelstein (美 BMY 社)
- Enqune C. I. Kim 웨스턴 미시간 대학교수
- Edward A. Olsen 美 해군 대학원 교수
- 박동환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
- James B. Vaught 육군중장(예)
- Philip West 인디애나 대학 교수
- Donald Mundell(TEXAS Instruments 社)
- Thomas Wilborn 美 육군 대학 교수